

연중 제 30 주일

제1독서 : 집회 35, 15-17. 20-22  
제2독서 : 2디모 4, 6-8. 16-18  
복 음 : 루가 18, 9-14

# 순정이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루가 18, 13)

## 강론

### 나는 바리사이파(?) 세리(?)

김기수 신부/고창성당

율법 엄격주의, 율법 존중주의와 조상대대의 전통을 고수하며 열심히 교양있는 부유한 평신도 단체인 바리사이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로마 황제를 위해 세금을 걷으면서 창녀와 강도, 사기꾼과 같은 공적 죄인으로 취급받은 세리!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사이파인과 자신이 너무나도 추악한 죄를 많이 짓고 있음을 고백하는 세리 즉, 극과 극의 두 인물을 대비해서 자기만이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오만하기 이를데 없는 바리사이파!

하느님 앞에 서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충심으로 의로움에 주리고 목말라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갈망하고 신뢰하며 의탁한 세리!

요즈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은 바리사이파 처럼 욕심이 없고 부정적하지도 않았고 세금도 잘 냈고 국민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보라는 듯이 말합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사이파인들 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교무금 잘 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공로를 쌓았다고 으스대는 마음으로 걸꾸미는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 교만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세리의 모습처럼 진정으로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면서 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바리사이파(?) 아니면 세리(?)

## 소리

### 만약

만약 신앙의 선조들이 천주교를 금하는 국법을 준수하고 부모와 처자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아마 지금도 우리는 쉬쉬하면서 골방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만약 임진왜란이나 일제 강점기처럼 겨레가 외적의 말발굽 아래 짓밟힐 때 조상들이 일신의 안일만 도모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아마 지금도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군사 정부가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군화로 짓누르고 있을 때 피끓는 젊은이들이 민주화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 없이 오로지 성적과 취업에만 매달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아마 지금도 군화 밑에서 숨을 제대로 못쉬고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아파트 평수와 자가용 배기량 늘리는 것에 급급하고 개인적인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데 몰두하면서 뜬구름잡는 사랑타령만 늘어 놓고 있다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는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까. 아마 군밤을 모래밭에 심어 썩어나야 이루어질 것이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고 밤공기가 차가워지는데 60일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선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일의 열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

### 순정이 산책



“213년의 역사가 26년만에 완성”



1998년 성령의 해

“함께 가요, 우리-민족 화합에 앞장서기”

몇 년 전,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호통을 쳐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적이 있다. 전쟁 일촉즉발이라고 생각하여 먹을 것을 사재고 금붙이를 모으는 등 분위기가 사뭇 흉흉하였다. 그 때 나는 남의 나라 땅에 있었는데, 제발 전쟁을 막아 달라고 애타게 울며 기도하던 생각이 난다.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조국 땅과 부모형제를 다시 못 볼까봐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 겨레가 너무도 가련하게 느껴졌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자랑하지만 외세의 침략과 세도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20세기 중반까지 허덕이며 살아온 우리였다. 겨우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을 하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때로는 기본적인 인간성마저도 희생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이제 간신히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생명을 건 투쟁을 토대로, 젊은이들의 지치지 않는 부르짖음을 기반으로 오랜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민주국가를 이룬다는 희망에 차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서 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니... 너무나 억울했다. 그 동안 우리 백성이 피땀 흘리며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생각을 하니 전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형제끼리 또다시 총칼을 들이대다니...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어쨌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는 당장 전쟁의 화를 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즈음 국회를 비롯해서 나라

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시금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결국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민족일까? 겨레의 공동선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사도를 발휘할 수는 없는 민족일까? 왜 우리는 아직도 가슴 깊이 적대감과 저항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할 수는 없다.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런 찢어진 상처를 물려줄 수는 없다. 하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온 겨레가 하나되어 팔만대장경을 새겼던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처럼, 한 마음, 한 목숨이 되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우리 언니, 오빠들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찢어진 상처들을 하나 들씩 이어 짚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하나로 이어지고, 동과 서가 이어지며, 온 겨레가 하나되어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천년기에는 온 겨레가 오순도순 평화롭게, 참으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겨레가 하나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80년대 초반에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본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보자. 네 눈에 먼지들이 씻어지리니. 무명옷 갈아입고 들길을 가자. 네 맘에 고운 꿈이 새겨 지리니. 한 때는 미워했던 사람들마저 겨레의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보자. 네 눈에 먼지들이 씻어지리니. 무명옷 갈아입고 들길을 가자. 네 맘에 고운 꿈이 새겨 지리니.”

기쁘고, 온충의 다짐과 2000년 대희년까지 7년 2개월 6일 남았습니다.

웅진출판은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21C 웅진학습 대백과+CD롬 (초·중·고 대상), 웅진곰돌이 (언어·수) 통합학습지  
 전북 총 사업본부장/탁경희(울리안나)  
 ☎ (0652) 275-6273, 275-6279  
 구입문의나 교육사업 함께 하실 분 연락주십시오.

**침대 공 전시장**  
 (이 레 가 구)  
 • 싱글 : 95,000원  
 • 더블 : 130,000원 부터  
 • 퀸 : 220,000원  
 전주점 (0652) 211-8716~7  
 익산점 (0653) 843-2676  
 군산점 (0654) 465-2841  
 대표/김미숙(안젤라)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의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하삼바오로)  
 Tel 225-5252, Fax 223-5332

**행복 웨딩 스튜디오**  
 웨딩앨범 제작, 아기·가족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정 진 우(아모스)  
 정 성 이(레 아)  
 ☎ (0654) 471-5557, 465-4996  
 \*교우분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국동주주소 사거리 썬아트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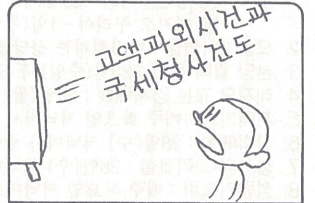
궁금해요

혼인성사는 꼭 자신이 속한 본당에서 본당신부님의 주례로만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문서는 소속본당에서 작성해야 하지만 혼인성사는 다른 성당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예식의 주례권은 원칙적으로 소속본당 주임신부에게 있지만, 주임신부님의 위임을 받은 다른 신부님이 혼인 주례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인 면담 때에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혼인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면 본당신부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성사는 하루아침에 딱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도 준비하고, 혼인교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한달 전에는 신부님과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본당에 있다보면 '일주일 후에 결혼하는데 혼인성사 좀 받게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신자들이 있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본당신부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심이 (1316) 김병오



평화동 성당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  
일 시 : 10월 29일(목)~ 11월 1일(주일)  
오전 10시~오후 11시  
장 소 : 평화동 성당 신축현장  
주최: 평화동 성당  
☎ (0652) 232-5005

교구·제 단체 소식

1. 레지오 단원교육 : 10월 26일(월), 전동성당
2. 교구 사제양성 후원회 미사 : 10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3. 2000년 대희년 교구준비위원회 및 사제평의회 :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4. 새사제 연수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5. 은혜의 밤 철야기도 : 10월 30일(금), 오후 11시, 전동성당
6. 애령회원 피정 : 10월 31일(토) 오후 2시 30분~11월 1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강사-사목국장 박인호 신부, 안득수(마리오) 박사  
준비물-성교예규(신연도책), 미사도구
7. 레지오 소년단원 교육 : 11월 1일(주일), 전동성당
8. 포콜라레 모임 : 11월 1일(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9. 홈케어(가정방문실) 주소 변경 : (우) 560-120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0-3 거산항공APT 104동 302호 ☎ 231-4446
10.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11월 3일(화), 주제-착한 죽음을..... 지도-전달수 신부

제3차 성체 현양대회

일 시 : 1998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치명자산 주차장  
주 레 : 이병호 주교  
전야제 : 10월 27일(화) 오후 8시, 전동성당에서 성시간, 밤샘성체조배  
주 최 : 전주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후 원 :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성소 피정

주제 : 더불어 사는 기쁨  
일시 : 11월 7일~8일  
장소 :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신청 : (051) 581-3103~5  
참가비 : 10,000원  
준비물 : 세면도구, 미사도구, 성서, 청소년성가

성소 피정

주 제 : 결실을 향하여  
일 시 : 11월 8일(주일)  
장 소 : 천호 피정의 집  
신 청 : 11월 4일까지  
참가비 : 5,000원  
문 의 : 바로로말 수도회  
☎ (0652) 252-3398

금·은·보석·시계  
관 보 석

이 동 주(도비아)  
박 영 실(헤레나)  
서신2지구 상업은행 앞  
☎ (0652) 275-0076

예일연예기획  
예일아코디언교습소

연예행사 출장 반주  
아코디언, 기타, 만도린  
전자올겐 개인지도  
염 규 철(요셉)  
☎ 221-5366  
(휴) 016-651-5233

사랑의 다리 피정

때 : 11. 3(화) 오전 9:30~오후 5:00  
곳 : 용머리 성당  
준비물 : 미사도구  
회비 : 3,000원(점심제공)  
접수 : 10월 30일까지  
교구 사회사목국으로  
☎ (0652) 284-5290 Fax 284-4855

##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일 것이다" (루가 18, 14)
- 모임: ① 울프레야, 요셉회, 성모회, 전례부 - 교증미사 후  
② 동그라미 불림회 - 26일(월) 후 7시 30분  
③ 성심부녀회 - 28일(수) 전 10시  
④ 레지오 꾸리아 - 1일(주일) 교증미사 후
  - 오늘 2차헌금: 바자회하는 성당을 위하여 2차헌금을 실시함.
  - 본당 월력 광고: 25일(주일) 후 8시까지만 접수받고 즉시 추첨함
  - 레지오 교본 경시대회: 26일(월) 후 7시 30분, 성당
  - 저녁기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 참회예절: 28일(수) 저녁미사 중에
  - 성서와 교리교실: 28일(수) 저녁미사 후 \* 제 19절 하느님의 아들
  - 성령기도회: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 호도 잔치의 날: 29일(목) 61세 이상 남녀신자는 접수 바람.
  - 병자 방문: 30일(금) 후 2시부터, 진달래마을은 후 4시 30분
  - 구역별 체육대회: 11월 1일(주일) 후 1시 30분부터  
\* 남성은 배구, 여성은 터치볼 경기를 함
  - 감사: 성지순례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 봉헌의식 운동: 주일헌금은 더 내시고, 고무금은 월납하시길
  - 금주 전례: 해설 - 김학덕(보나벤투라), 독서 - 임태형(타르코) 부부  
봉헌 - 이점열(안토니오) 가정
  - 차주 전례: 해설 - 문승욱(안드레아), 독서 - 이승태(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부부,  
봉헌 - 장현근(안토니오) 가정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 무 실 2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274-9260 수 녀 원 2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와 희생을 바칩시다!
- ◎ 오늘: 교무금 납부일 \* 미납된 교무금을 정리바랍니다.
- 금주 모임: ① 애령회, 방주회, 울프레야 - 공식미사 후  
② 청년공동체 - 저녁미사 후, 4회의식
  - 주간 모임: ① 불림 친선대회 - 26일(월) 후 7시 30분, 회원가입 환영  
② 엠마우스회 - 28일(수) 후 7시, 1회의식  
③ 성령기도회 - 28일(수) 후 8시, 유아일
  - 차주 모임: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 차주 - 신축성당을 위한 2차헌금,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 환자 봉성체: 30일(금) 후 1시부터, 수녀님
  - 애령회헌 피정: 31일(토)~11월 1일, 나바위 피정의 집
  - 부지헌금 2차신원 감사!: 박래신 10만 누계 - 774만원
  - 전입가정 환영: ① 김영돈(토마스) T. 252-5282, 현대A 102/502  
② 남은숙(아레파) T. 254-1544, 6구역 1반  
③ 윤현옥(막달레나) T. 251-1661, 성원A 102/1202
  - 축! 혼인: 오늘 12시, 성당  
신랑 - 송원섭의 차남 송승훈(힐라리오)  
신부 - 채영숙의 장녀 김수경(소피아)
  - 독서: 금주(새벽) - 노문석, 한복이, 차주 - 안길창, 정미숙(공식) - 최성복, 유인숙, 차주 - 김경상, 강영순
  - 미사 안내: 금주 - 자비의 모후Pr., 차주 - 성조의 모후Pr.
  - 주차 안내: 금주 - 구세주의 모후Pr., 차주 - 경의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2,095,900원 □ 교무금: 3,306,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 무 실 2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281-0441 사목회장 최 공 엄

- ◎ 가없는 이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 ◎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서로하는 용머리 공동체!
- 금주 모임: 꾸리아, 요셉회, 사라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차주 모임: ① 사목회 - 4일(수) 후 7시 30분  
② 성모회, 성심회 - 4일(수) 미사 후
  - 축! 혼배: 11월 1일 12시 30분  
신랑 - 이상일, 신부 - 이민경
  - 교리교사 겨울 연수: 11월 7일~8일 \* 많은 격려 바랍니다.
  - 각 분과별, 단체별,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 다음주일엔 성소후원회비 납부일입니다.
  - 성전신축 재 신립 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 광명실, 김영자, 박찬기, 익명, 김중철, 김승규, 강순길  
합계 - 490만 누계 - 3,215만
  - 심루시아 수녀님 휴가: 28일~11월 6일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입가정 환영합니다: 조규상(바오로), 박홍영(요셉), 안해숙(베로니카), 황경이(안젤라)
  - 차주 전례: 해설 - 오은표, 독서 - 이향량, 강준철
  - 청소봉사: 7, 8구역, 청솔금호와 현대APT 전체
- 지난주 봉헌금: 1,449,900원 □ 교무금: 1,619,000원

**우 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김 호 훈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 - 893,435단
- ◎ 본당 전화번호부를 발행합니다: 사무실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고, 광고도 접수중입니다.
- 금주 모임: ① 승리의 여왕Cu. - 전 9시 ② 요셉회 - 공식미사 후
  - 특별강론: 25일(주일)미사때 평화신론 신부님
  - 사목회 각 분과에서는 99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바랍니다.
  - 금년도 교무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고,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3,250,000원(7세대)
  - 성가대원 모집: 성가에 관심있는 형제, 자매단을 모집합니다.  
\* 성가연습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성당
  - 축! 혼인성사: 11월 1일 12시 30분, 본당  
신랑 - 배명희, 김성일(재)씨 삼남 김경일  
신부 - 이정민, 김 연석 장녀 이경하(테레사)  
11월 8일 12시 30분, 본당, 신랑 - 이수원, 이정옥씨 막내 이철현(빅돌), 신부 - 양옥자 여사 차녀 김영아(세노비아)
  - 차주: 천주의 모친Cu., 성소후원회, 성체강복, 봉성체, 여성분과회
  - 금주 전례: 해설 - 김용만, 독서 - 권호상, 허신영  
봉헌 - 박영근, 최금주 부부
  - 차주 전례: 해설 - 여대우, 독서 - 김용만, 김은숙  
봉헌 - 임창수, 권정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50,560원 □ 교무금: 3,538,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설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 가없는 이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 ◎ 감사합니다: 선녀머 열린 한마당 잔치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금주 모임: ① 제대회, 구역(반)장 회의, 성모회 - 낮미사 후  
② 상지원 봉사 - 낮미사 후  
\* 전교주일 2차 헌금 있음
  - 예비신자 교리: 27일(화), 28일(수) 후 8시
  - 가정방문, 구역미사: 30일(금) 후 7시 30분 - 광진
  - 차주 모임: ① 꾸리아 - 전 9시  
② 편집분과, 울프레야 - 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헌금 있음
  - 금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홍정의, 저녁 - 이영숙
  - 차주 전례: 새벽 - 광순옥, 낮 - 이영순, 저녁 - 정인자

□ 지난주 봉헌금: 602,4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근

- ◎ 예비신자 인도에 총력을 다 합니다: 성탄 전까지 1인 1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발굴하여 주님앞에 봉헌 합니다.  
\* 봉헌서는 사무실에 제출 요망
- ◎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금주 모임: ① 복음화추진위원회 - 25일(일) 공식미사 후  
② 전례해설단회의 - 25일(일) 공식미사 후  
③ 꾸리아 - 29일(수) 전 10시
  - 성서 교리 교실: 매주 (화) 전 11시, 후 8시  
\* 바로 알고 바른 행함을 위한 교리교사 양성반
  - 지난주 예비신자 봉헌하신 분: 김영례(마리아) 4명, 황예성(세실리아) 1명
  - 성체 현암 대회: 28일(수) 전 10시, 치명자산 주차장
  - 유아 세례: 31일(토) 후 3시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10분전: 입교 대상자를 위한 목주기도 미사 후 - 임채남송 성경 듣기 15분 가량 있음
  - 이웃사랑 기금: 10일부터 18일까지 1,150,000원  
감사합니다.
  -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 봉사: 개나리아 구역
- 지난주 봉헌금: 1,024,250원 □ 교무금: 1,174,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